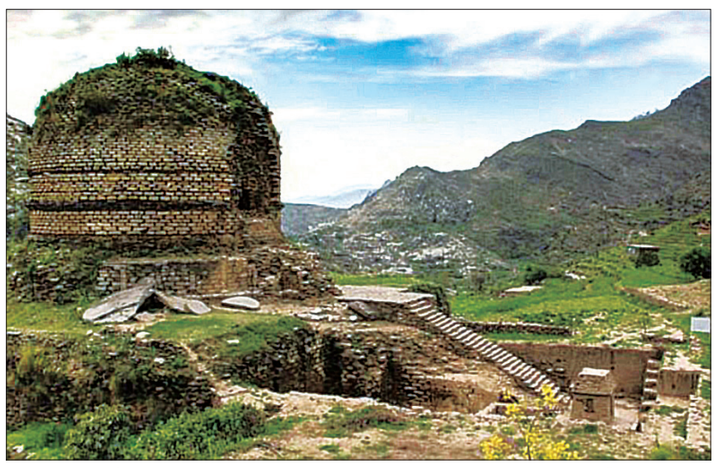
中, 파키스탄 불교 후원 속내는?

'소프트 외교' 내세우며 지원
종교 자유 침해 우려 목소리
"자국 통제 하는 것" 해석도
이웃 국가 영향력 행사 우려

박영빈 객원기자


파키스탄 스와트 지구에 산재한 고대 불교유적지. 사진출처=비터윈터

현재 이슬람국가로 더 널리 알려진 파키스탄. 그러나 고대의 파키스탄은 아시아 불교의 중심지로 당시 불교 철학과 문화가 교차하는 중심지였다. 이러한 불교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파키스탄 불교'의 복원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지난 6월 17일, 인권 전문 매체인 '비터 윈터'는 중국의 파키스탄 불교 후원에 대한 논평을 보도했다.

비터 윈터는 아시아의 전통적인 불교 국가들을 제외하고, 현재 파키스탄에 대한 주목이 점점 집중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비터 윈터 측은 "스와트 계곡에 산재한 불교사원과 불탑 유적지 등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거나 새롭게 발굴되는 등 파키스탄이 점차 새로운 불교 순례지이자 불교사의 중심지로 홍보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파키스탄 불교의 복원과 유지에 "가장 주요한 후원자는 중국"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 파키스탄에 산재한 불교 유적지와 페샤와르의 간다라 대학의 발굴과 유지, 연구에 대한 막대한 자금을 후원하고 있다. 특히 고대 불교의 중심지였던 스와트 지역이 8세기경 티베트에 처음 불교를 전한 파드마삼바바의 출생지라고 강력하게 추정되면서 중국 불교도들을 비롯해 해외순례자들을 유치하는 홍보에도 중국의 영향이 강하다.

이탈리아의 종교학자 마시모 인트로비네 박사는 "전통적으로 파드마삼바바의 출생지인 '오디야나'에 대해서는 파키스탄의 스와트 지역과 인도의 오리사주, 혹은 카슈미르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고고학적인 증거가 나온 것은 없다"고 전했다. 마시모 박사는 "오디야나가 실제로는 신화적인 장소라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한다. 어쨌든 중국은 사람들이 그가 파키스탄에서 태어났다고 믿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의 종교학자 찬단 쿠마르 박사는 이에 대해 "현재 전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티베트 불교를 계기로 파키스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미지로 중국은 고대의 중국과 같이 국제 불교계에 중심에 서려한다"면서 "중국의 전형적인 소프트 외교의 일환이지만 이것을 단순한 문화적 행보로 보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국제불교연합체들은 단순히 우국의 친불교적 행보가 불교를 중국의 통제 하에 두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비터 윈터 측은 중국이 '불교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전통적으로 불교의 발상지나 중심지로 생각된 인도나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중요성을 떨어뜨리고, 중국을 종교의 주요 국제 중심지로 홍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특히 "달라이라마 후계 문제 등을 둘러싼 티베트 불교계의 주요한 이슈를 선점하고 타 불교국가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하는 시도"라고 평했다.

마시모 박사는 "중국은 현재 국제 불교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달라이라마에 헌신하는 티베트 불교도들을 중국정부가 통제하는 중국불교협회 내에 흡수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 속내는 단순히 불교의 진흥이 아닌 중국 공산당이 당의 도구가 되기를 거부하는 종교단체들, 또한 불교의 자유로운 신행활동과 표현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만 불교계, 남아프리카에 자비행

쯔치 재단, 말라위에 학교 건설
진료 위한 의료공간 건설 계획



대만의 한 불교계 자선 단체가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마을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자비행을 실천해 화제다. 〈사진〉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가 6월 26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만에 본부를 둔 불교계 국제 인도주의 단체 쯔치 재단(Tzu Chi Foundation)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말라위(Malawi)에 위치한 치구지우(Chigoujiu) 마을을 방문해 아동 돌봄 서비스를 진행했다.

해당 매체는 "치구지우 마을은 2022년 사이클론 아나(Ana)에 이어 올해 초 프레디(Freddy)까지 덮쳐 황폐화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마을의 재건을 돕기 위해 온 쯔치 재단 자원봉사자들은 주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고 밝혔다.

쯔치 재단은 이번 치구지우 마을 재건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우물을 지어준데 이어 아이들을 위한 교육 시설도 건설했다.

당초 100명의 아이들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학교는 개교하자마자 정원을 초과할 만큼 높은 인기를 끌었다.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스포츠, 문화 활동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쯔치 재단은 위생 및 의료 지원의 일환으로 의무 공간 건설도 계획하고 있다.

마을 촌장 자바두(Javadu)씨는 "쯔치 재단의 재건 프로젝트로 인해 지역민들이 삶의 질이 매우 향상됐다"며 "아이들도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기뻐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쯔치 재단은 1966년 대만의 비구니 스님인 청옌(Cheng Yen)이 설립했다. '자비심의 실천'을 기조로 인도적 지원, 의료, 교육 등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 세계 51개국에 약 1천만명의 자원봉사자를 보유한 UN 승인 NGO다. 해당 매체는 "청옌 스님은 모든 사람들이 부처와 같은 큰 자비와 연민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며 "진정한 연민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동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자비행으로 발현돼야 한다고 강조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88세 생일 맞는 달라이 라마 라다크 방문

7월 10일, 레 도착…8월 25일까지 일정 소화



오는 7월 6일 생일을 맞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사진〉가 중국과 접경 지역인 인도 레(Leh)의 라다크를 방문한다.

라다크불교협회는 인도 매체 인디안익스프레스(The indian express)와의 6월 20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달라이 라마가 오는 7월 10일 인도 북부 잠무카슈미르 지역인 레에 도착해 8월 25일까지 머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달라이 라마의 레 방문은 1년 만이다.

라다크불교협회 레그진 도르제이(Regzin Dorjay) 청년부 회장은 "달라이 라마가 레에 도착한 후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한 뒤 초캉 비하라 수도원(the Chokhang Vihara monastery)을 방문한다"며 "이후 람돈 모델 시니어 스쿨(Lamdon Model Senior Secondary School)을 방문한 후 21~23일 라다크의 초그람사르(Choglamsar) 마을에서 설법을 한다"고 설명했다.

달라이 라마의 이번 설법 주제는 '카담파(Kadampa)의 걀세이 톡미 장포(Gyalsey Thokmé Zangpo, 1295-1369)의 37가지 보살 수행'이다.

달라이 라마는 앞서 지난해 7월에도 라다크불교협회의 초청을 받아 해당 지역을 방문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의 이 지역 방문에 대해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하다며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당시 중국은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달라이 라마의 생일을 기념해 인도에 초청한 것을 두고 "인도가 중국 내정에 간섭하기 위해 티베트 관련 문제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도는 "달라이 라마를 자국의 영예로운 손님으로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반박했다. 달라이 라마도 "싸움은 '나의 나라' '나의 이데올로기(생각)' 때문에 일어난다. 너무 편협한 접근"이라며 "이제 더 많은 중국인들이 달라이 라마가 독립을 추구하지 않고 중국이 (티베트에) 의미 있는 자치권을 부여하고 티베트 불교 문화의 보존을 (보장하기) 바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태국 불교대표단, 바타칸 방문…종교간 우의 나눠

교황청 종교간대화 평의회와 회담
묵상 기도로 모든 이들 평화 기원



바티칸에서 만난 태국불교대표단과 교황청 종교간대화 평의회. 사진출처=바티칸 뉴스

태국 최고 승가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태국 불교대표단이 가톨릭 교회의 중심인 바티칸을 방문했다. 대표단은 이틀간 바티칸을 방문하여 교황청 종교간대화 평의회와 회담을 하고 함께 기도회를 가졌다. 지난 6월 15일, '바티칸 뉴스'는 양 종교간의 대화와 우정에 대해 보도했다.

6월 15일 로마의 아우구스티노 대학에서 열린 태국 불교대표단과 교황청 종교간대화 평의회의 회담은 1분간의 묵상기도로 시작됐다. 기도의 주제는 '진정으로 모든 이를 지금 여기로 이끌기'로 종교를 떠나 모든 이들의 일치와 평화를 기원했다.

이틀간 열린 이번 회담에서 태국 불교대표단은 태국 최고 승가 위원회, 왓 프라 체투폰 승가회의, 해외 담마다투 비구 호법부, 프라자티폭 왕립연구소 등의 출재가를 비롯한 80여 명의 불교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가톨릭 측은 종교간대화 평의회 의장인 아유소 기소 추기경을 대표로 종교간대화 평의회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태국 불교 대표단은 당초 교황과 직접 회담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최근 교황이 대장 탈장 증세로 긴급 수술에 들어가면서 직접 면담은 불발됐다. 대신 이들은 최고 승가위원회 의원인 솜뎃 프라 마하티라찬 스님의 서명이 담긴 서한을 교황에게 전달했다. 이 서한은 태국 불교계와 태국 가톨릭 치앙마이 교구를 대표해 이탈리아어로 작성됐으며 두 종교 간의 형제애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서한에는 불교대표단이 선종한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무덤을 참배하는 등 바티칸에서 두 종교간의 대화를 위해 이룩한 활동들을 언급했으며, 교황의 쾌유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아유소 추기경은 태국 불교대표단의 기도와 메시지에 감사를 표하며 "불교도와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기쁨과 같은 슬픔, 같은 우려와 같은 전망'을 공유한다"며 두 종교간의 일치점을 말했다. 또한 "가톨릭과 불교의 두 대표단의 만남은 진정으로 함께 진리를 위해 순례를 떠나는 벗과 같으며, 교황도 이를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박영빈 객원기자



이론 연구만으로 열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음챙김 명상을 해야 한다. 열반에 대한 근본적, 체계적, 실천적 이해를 도모, 제시하였다.
담마삐야 사야도 지음, 정준영·차은숙 옮김/신국판/288쪽/값 18,000원



티베트불교 역사상 『입보리행론』에 가장 정통한 수행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톡메 상뽀가 그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한 해설서이다.
톡메 상뽀 저, 수다지 켄포 한역, 지엄 한글 편역/신국판/양장/640쪽/값 40,000원



『주역』과 불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양자를 융합 회통하여,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천적 의미를 지닌 『주역선해』에 상세한 각주와 풍부한 해설을 붙였다.
우익지욱 저, 최세창 강설/신국판/512쪽/값 2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